

# 首都圈의 都市와 人口問題

(下)

## 都市人口 集中이 經濟成長 이룩 都市가 都力形成 되면 分散 不可能

서울의 人口가 600萬을 돌파하자 首都圈 人口의 分散 政策이 擡頭된바 있다. 首都圈으로 集中되는 人口密集 現狀이 多角度로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다.

專門家들이 말하고 있는 人口의 都市化란 무엇이며 世界속의 韓國의 都市化는 어떤 程度인가, 또 人口密集의 短點과 長點은 무엇인가, 9月 18日 서울 國際 싸이언스클럽 創立 7周年 紀念式에서 行해진 朱 源 先生의 特講을 발췌 紹介한다. —편집부—



서울 국제 싸이언스클럽 創立 7주년 기념식에서 特講하는 經濟科學審議會 朱 源 常任委員

나는 農村은 都市보다 華麗하진 않지만 알맹이 있는 生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소득격차(G. N. W)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도시내에 있다고 본다.

고소득층 상부층과 하부생활과 너무 차이가 많다.

69년 도시에서 저소득층이 45% 일대 상부층이 16.5%에서 71년 저소득층이 16.7% 상부층이 28.8%였다.

GNW로 볼때 63년 상층을 100으로 보았을때 저생활층이 61 정도였고 71년엔 43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때 사회의 안정은 될 수 없고 상태가 더욱 심각한곳이 서울이다.

이런상태가 개개인에게 어떤 감정을 주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都市意識조사라고 한다. 작년에도 이 조사를 실시했지만 발표를 못했다. 이

곳엔 과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문제는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일로 생각한다.

이런문제는 도시인구집중 현상이 커지면 커질 수록 더욱 커질것이다.

농촌에 도시인구적 살림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알아보아야 한다. 정확숫자는 어렵지만 63년 농촌내에 도시생활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30.1%에서 71년엔 28.4%로 줄어들었다. 이들은 주거는 농촌이지만 사실상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인구가 지금현재 28%정도는 있으며 도시인구라는 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시인구는 야간인구와 주간인구로 구별해 보아야 한다.

집은 시흥에 있고 활동은 서울에 와서 하면 주간인구엔 들어가도 야간인구엔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인구는 주간·야간인구로 나누어 생각해야 되고 도시의 인구는 야간인구보다 주간인구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볼 때 서울의 인구분산은 불가피한 일이고 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2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전국의 13%를 차지하는 수도권인구중 도시인구가 79.4%인데 수도권내 도시인구를 더 늘여서는 안되느냐, 이정도로 유지해 나가면서 고쳐야 되느냐에서 문제의 귀추가 달라지게 된다.

만일 수도권의 도시인구를 지금보다 줄이려고 하면 서울의 인구분산방향을 수도권내의 서울인구의 분산은 아무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도로공사가 성남시로 나갔다는 것이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수도권인구의 현재비율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도시·중도시·소도시인구 구성을 고쳐나가면 서울도시인구는 1차적으로 수도권내에 옮겨놓으면서 나갈 수 있는 두 방향이 있다.

서울자체인구가 분출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 의지에서 모이는 총인구중 14%가 서울인구이다 부산자체는 서울인구의 흡수력을 갖고 있다.

의정부의 경우도 과반이 서울인구이다. 대도시의 인구를 밀어내는 힘도 갖고 있는 까닭에 가만두어도 분산은 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분산할때 두가지 과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는 우리국민은 우리국토의 어느곳에 가서도 살수 있기에 (주거의자유) 막기 어렵다.

서울시 인구분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막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원호사업을 안한다고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한다.

도시문제는 사회의 경제 문화등과 얽혀있어 단순한 한가지만 보고 다루다가는 큰 파고를 격게된다.

대도시 인구분산은 그리쉬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힘 어떤힘으로도 안되는 일이다.

그것은 도시의 힘이 인근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 강도를 계산했는데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과정을 걸고 있다. 누가 어떤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다. 도시가 都力이 형성되면 누구도 어쩔수 없는 것이다.

## 經濟發展을爲한科學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

—헌법 123 조—